

방사선 유입 가능성 대비 22개 시·군에 감시기 구축

전남도, 8억5천만 투입 12월까지 설치 정보 실시간 확인·분석 대응 체계 마련

전남도가 중국, 일본 등 인접국가로부터 방사선 유입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무인자동 환경방사선 감시기를 도내 전 시·군에 구축한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한빛원전 소재지와 인접지역인 영광·함평·무안·장성 등 4개 지자체 일원에 환경방사선 감시기 및 외부 모니터링 클라이언트 20개소를 설치, 지난 2016년부터 자체 운영중에 있다.

현재 실시간 방사선감시정보를 제공하는 국가 환경 방사선 감시망에 등록된 환경방사선 감시기는 전국에 348개소가 설치돼있다. 자체운영 중

인 20개소를 포함해 도내에는 총 56개가 있다.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국가망은 홍농, 목포, 여수, 완도, 고흥, 해남, 진도, 가거도 등 한빛원전과 바닷가쪽에 14개가 설치돼 있으며 원전서 관리하는 사업자망은 한빛원전에 22개가 운영중이다.

전남도는 중국과 일본 등 인접국가의 원전사고 발생시 방사선 유입 대응과 국내 원전 방사선 비상시 실시간 감시가 필요하다고 보고 전 시·군에 환경방사선 감시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감시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18

개 시·군에는 8억5,000만원을 들여 연말까지 감시기 1대씩을 설치한다.

군청이나 시청, 읍면사무소 등 관공서를 중심으로 감시기를 설치하고, 이들 감시기와 국가감시망을 연동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한다.

또 일선 시·군에서도 방사선 데이터를 검색하고 분석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설치해 감시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분석하고 비상시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

김광철 원전안전팀장은 “도민들의 건강권 확보와 비상시 신속한 대책 수립을 위해서 보다 촘촘한 방사선 감시망 구축이 필요하다”며 “전국 최초로 전 시·군에 환경방사선 감시기를 구축함으로써 방사능 실시간 감시체계 마련과 함께 재난시 초동대응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김영록 전남지사가 27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도 산하 18개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사·출연기관 성과보고회에서 2022년 도 기관별 주요계획 및 2021년 중점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받고 있다. /전남도 제공

김지사 “공사·출연기관, 국정과제 발굴 온 힘”

올해 중점 추진사업 성과보고 등 주요현안 논의

김영록 전남지사는 27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공사·출연기관 업무보고회’에서 “전남도 산하 공사·출연기관도 차기정부 국정과제 발굴에 온 힘을 쏟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업무보고회에서는 전남개발공사 등 도 산하 18개 공사·출연기관이 모여 연초 도민과 약속했던 올해 업무 계획에 대한 성과를 점검했다.

기관별 주요 성과 보고에서 전남개발공사의 경우 영광·신안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및 여수·광양 도시개발사업

본격 추진, 광주전남연구원은 신 균형성장전략 및 조광역 협력 프로젝트 연구 수립 및 스마트공장 보급,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신안 8.2GW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플랫폼 구축 및 전남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추진을 설명했다.

이밖에 전남중소기업진흥원은 육성자금 추천 및 소상공인 경영 컨설팅 지원, 전남신용보증재단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소상공인 지원, 전남사회서비스원은 종합재가센터 설치 및 찾아가는 전남 행복버스 운영, 순천·강진의료원은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등의 성과를 공유했다.

김지사는 “현재 공사·출연기관에서 차기정부 국정과제로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허브 조성 사업’, ‘그린수소 에너지 섬 조성 사업’ 등을 발굴·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관의 특화된 연구역량을 최대한 발휘, 국정과제를 추가 발굴하는데 온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김지사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공사·출연기관의 노고를 격려했다. /김용현 기자

정기 브리핑

민형배 “상호금융 대출 절반 고신용자”

고신용자들이 은행 금융당국의 부동산 대출규제를 피해 상호금융으로 몰리면서 올해 상호금융 신규대출의 절반 가량을 고신용자들이 받아갔다.

상호금융이 투기의 우회 경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이 27일 상호금융중앙회에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의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37조7,165억원중 절반 가까운 규모(46.53%)인 17조5,499억원이 신용등급 1-2등급의 우량차주 대

출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 1-2등급 대출자의 비중은 19.71%(11조2,886억원), 2019년 예도 21.41%를 유지에 불과 했으나 2020년엔 26.75%까지 늘어난 뒤 올해 들어선 46.53%까지 폭증했다.

문제는 이처럼 고신용자 대출을 상호금융이 늘리기 시작하면, 저신용자들이나 저소득 대출자들이 대출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민 의원은 “은행권 대출 규제로 고신용자들이 제2금융권으로 밀리는 풍선효



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고소득자의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대출규제 목표 달성이 실패하고 오히려 제2금융권을 주로 이용하는 계층이 자금을 조달할 곳이 사라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부동산 투기를 막으면서 서민들의 자금수요는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덕 “학교전담 경찰관 정원 부족”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된 ‘학교전담경찰관’이 시행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의원이 2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 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은 정원 1,122명 중 현원은 1,020명에 불과했다. 정원 대비 배치 비율은 전국 평균 90.9%로 나타났다.

제주는 정원 대비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비율이 66.7%에 불과해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서울 105.2%, 전북 101.5%로 두 곳만 정원 대비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비율을 충족했다.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정원수와 전국 초·중·고교 학교와 학생의 수를 비교한 ‘학교전담경찰관’ 비율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윤 의원은 “학교전담경찰관 1인이 담



당하게 되는 학교와 학생의 수가 많아서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교육부와 경찰청, 푸른나무재단 등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재 “부동산 의혹 무혐의 사필귀정”

더불어민주당 김희재(여수)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제기된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과 관련,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필귀정”이라며 “진실은 반드시 이기고, 진실을 덮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결코 없

다”고 밝혔다.

부동산 관련 의혹에 대해선 “국민권익위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조사와 명백한 판단오류, 민주당 지도부의 소명 절차도 거치지 않은 무책임한 정무적 판단이 결합해 발생한 여처구니없는 사건”이라며 “국민의 권익 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국민권익위와 국정을 책임지는 민주당에



의해 이뤄졌다는 사실이 심히 유감이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아파트 매도 계약을 하면서 근저당을 설정해 명의신탁의혹이 제기돼 민주당으로부터 탈당 권유를 받았다.

윤재갑,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선정

더불어민주당 윤재갑(해남·완도·진도)의원은 27일 해남·완도·진도 관내 7개 초·중·고교가 2022년도 교육부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교육부가 2025년 까지 18조5,000억원을 투입해 저탄소 에너지 자급(제로에너지) 기술과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고,

학생 중심의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한 공간혁신과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학교시설 복합화를 실현하게 된다.

관내에서는 해남군 옥천초(1969년 준공)·해남중(1963년 준공), 완도군 고금초(1970년 준공)·약산초(1970년 준공)·금일초(1970년 준공)·고금중(1980년 준공), 진도군 진도실업고(1969년 준공) 등이 대상 학교로 선정돼



오는 2022년부터 사전 기획 및 설계, 공사 순으로 진행된다.

윤 의원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은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강병은 기자

행복노인전문요양원과 만남을 환영합니다.

행복노인전문요양원은 2010년에 설립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정 요양기관으로 노인복지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복노인전문요양원은 내 부모님이 편히 쉴 수 있는 집이라는 이름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수년간을 노력하였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내 집과 같이, 내 가족과 같이 항상 곁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책임지겠습니다.

1. 식사, 세면, 양치, 면도 등을 포함하여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맞춤형 또는 전반적인 도움을 드리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2. 의료기관의 연계 및 촉탁의사 방문, 약 복용 관리, 외래병원 관리 및 진료 등 어르신들의 질병 노출 및 예방에 힘을 것이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3. 간호처치, 물리치료 및 운동 치료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통해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해드립니다.
4. 인지기능 프로그램과 여가프로그램, 개별적인 영양 보호를 위한 영양 관리 지원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케어에 힘을 약속드립니다.

어르신들의 노인성 질환에 따라, 신체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행복노인전문요양원 문의. 062) 412-2000

NAVER 검색엔진 114